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들”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206-362-2278 | 연령화:425-225-6786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홍광철 세례자 요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

성체와 성혈은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성체와 성혈을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체와 성혈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간에 말입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 봐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 있는 빵이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6,51)

인간의 육신은 빵을 먹어야 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빵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이 빵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나에게 당신을 내어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당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굶주리게 되면 육신은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구원의 방향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기에 인간은 구원에 대한 희망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참된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미사에 참례하여 주님의 성체를 모십니다. 주님의 모셨기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은 변화됩니다. 언제나 주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찾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언제나 형제 자매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반갑게 인사하려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몸이 힘들지만 수고의 땀을 흘리며 형제자매들의 기쁨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기쁘게 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들은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조금만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강요하지 마세요. 저희는 하던 것이 있습니다.”하며 불평을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

이 있는 것이나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종종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도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고 공동체도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가 형제자매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과 공동체에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여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기쁘게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맞이하여 더 자주 미사에 참례하여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봅시다.

미사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저녁) 오후 7:30 (주일) 오전 8:00 / 10:00 오전 11:30 (학생) 오후 6:00 (청년)
월	오전 10:00
수/목/금/토	오전 10:00
화/수/목/금	오후 7:30

성사 안내

환자 봉성체	매달 첫 목요일 오전
병자성사	구역장을 통해 신청
성체강복	매달 첫 목요일 저녁미사 후
예비신자교육	(목) 오전 10:00 미사 후 (주일) 오전 8:20

학교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00
YG(고등부)	(주일) 오전 10:00
한국학교	(금) 오후 7:00 (토) 오전 9:30
안드레아 문화대학	(주일) 오후 1:00-4:00

성령(聖靈)

성경에서 성령에 대하여 사용한 단어는 바람, 숨, 입김을 뜻하는 루아흐(Ruah), 프네우마(Pneuma), 스피리투스(Spiritus) 등의 단어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① 야훼 하느님의 영

Ruah의 첫째 뜻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구약에서 자주 하느님 야훼의 현존(現存)을 표시합니다(창세 3,8). 바람은 하느님의 창조하시는 기운이요(창세 1,2, 시편 33,6), 하느님의 능력의 도구로서(2사무 22,16, 민수 11,31)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저항을 분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Ruah는 또 하느님 야훼의 입김이며, 만물은 이 입김으로 생명을 받습니다. 관관들도 일시적으로 야훼 하느님의 영을 받아 초인적 용맹과 지략으로 백성을 구하였고, 왕정시대에는 야훼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항구적 사명과 능력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그 증거로 도유식을 거행하여 신성한 권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야훼 하느님의 영은 예언자들을 이끌어 하느님의 길을 걷도록 하였습니다.

②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의 영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작용하셨고(루카 1,5-25), 동정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하셨습니다(루카 1,35), 마리아와 즈가르야와 시메온에게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아 보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하였습니다(마태 3,11).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의 선언이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메시아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고(마태 4,1),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풀어주셨고(마태 12,28),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루카 4,18). 항상 성령으로 가득한 예수는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예외적 현상이 없이 일상사처럼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요한 16,13-15).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제자들에게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는 성령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③ 성령과 초대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을 증언하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용감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으며, 그들의 지혜와 언변은 당대의 학자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여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성령께 받은 은총 중에서도 복음선포를 위한 열성과 용기는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담대하게 전했으며, 군중 앞에서, 의회나 법정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한결같은 용기와 지혜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발길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순교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초대 교회 신자들에게 뜨거운 형제적 사랑을 부여하시어 그들을 일치시키셨습니다.

모든 믿는 이는 한 세례로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을 이룹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 지체에 다른 기능과 은사를 베푸시는데, 모든 은사 중의 으뜸인 사랑의 선물은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어 놓습니다.

④ 위격(位格)으로서의 성령

신약에서도 하느님의 영은 많은 경우에 하느님의 힘을 가리키지만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는 위격으로서의 성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마태 28,19) 사도행전에서도 단 한 번 예루살렘 회의의 결의를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사도 15,28)고 하면서 성령을 독립된 위격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성령의 위격을 뚜렷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 승천 후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바로 사도의 서간에서는 하느님과 주님과 성령의 역할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구별해서 말하며 신자들에게 축원하였습니다.

성체와 성혈은 예수님의 “몸” 과 “피”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 8세기 중의 어느 날 아침, 성 바실리오회 소속의 한 수사 신부가 미사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에 실제로 현존하심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빵과 포도주의 성 변화를 위한 축성을 끝낸 순간, 갑자기 제병이 살아있는 살로 변하며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란 신부는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어서 미사에 참석한 이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은 곧 뛰쳐나가서 란치아노 시 전체와 인근 지방들에 알렸다고 합니다.

1970년과 1971년에 기적의 성체와 성혈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해부학, 병리 조직학, 화학 및 임상 현미경학 교수이며 아레쥬(Arezzo) 병원의 수석 의사였던 오도아르도 리놀리 박사가 시에나 대학교의 인체 해부학 교수였던 유명한 로저 베르텔리 교수의 도움을 받아 3개월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그의 발표 내용을 요약해보면

1. 성체 기적의 성혈은 참으로 피이며, 성체는 참된 살이다.
2. 그 살은 심장의 근육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3. 그 살과 피는 인간의 살과 피이다.
4. 피와 살의 혈액형은 동일하다. 이것은 그 피와 살이 동일인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혈액형이 같은 두 사람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다.
5. 피 안에는 정상적인 피에서와 같은 정상적인 비율의 단백질들이 발견되었다.



6. 피에서는 또한 다음의 무기물들이 발견되었다. 염화물, 인, 마그네슘, 칼륨, 정상보다 약간 적은 양의 나트륨, 그리고 정상보다 많은 양의 칼슘.

교수는 다음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a. 이 살이 인간의 심장으로 부터 해부적으로 잘라온 것일 가능성은 전무하다.

b. 그 살과 피를 보존하기 위하여 화학적인 방부 조치를 취한 흔적은 없다.

c. 그러므로, 그 살과 피 안의 단백질과 무기물들이 대기와 미생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부패되지 않고 보존된 것은 절대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이다.

1973년에 이탈리아의 의사이며 생물학자인 요셉 비온디니 교수는 세계 건강 기구(WHO)에 리놀리 교수의 검사 결과를 제출하였고 세계 건강 기구는 이 보고서의 특별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곱 나라들로부터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리놀리 교수의 분석 결과를 조사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합니다. 핵 의학 등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되었던 15개월 간의 연구 끝에 그 국제적인 과학 위원회는 리놀리 교수의 결론들을 완전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세계 건강 기구의 공식 출판물들에 실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고, UN 산하의 과학자들은 란치아노의 성체 기적이 “유래가 없는 케이스”이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사목지표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들”

전신자 실천사항

- 첫째, 하루 한 번 감사드리기
- 둘째, 행동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찾기
- 셋째, 내가 먼저 인사하기

공동체 소식

◆ 2017년 야외미사 안내

- 일시: 7/23(주일) 10시 미사 (미사 준비 관계로 9:30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Marymoor Park
6046 W. Lake Sammamish Parkway NE
Redmond, WA 98052.
성당에서 10시, 11:30, 6시 미사는 없습니다.
- 남쪽, 북쪽 버스 운행 합니다.
성당 출발: 오전 9시
- 이번 야외미사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2017년도 본당 골프 대회

- 일시: 2017.8.26 오후12:30
- 장소: Eaglemont Golf Course
4800 Eaglemont Dr
Mt.Vernon, WA 98274
- 문의: 황길수 미카엘 (사목회 총무)
425.773.2991

◆ VBS (여름 성경학교) 신청

- 대상: 현재 PrK ~ 2학년
- 일시: 7월 19일(수) ~ 7월22일(토) 까지
오전9:00 ~ 오후 2:30 까지
- 등록비: \$70

- 등록 마감: 6월18일(주일)
- 연락처: 김태미 엘리사벳
wangeyo@hotmail.com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천주교 공원 묘지 - 미리 구입 안내

- 장점: 가족들에게 위안과 선물, 선택(장소), 할부조건
- 10% 혜택 (6월30일까지)
- 매월 첫째 주일, 셋째 주일 친교실에서 상담합니다.
(8시 미사 후, 10시 미사 후)
문의: 박요안나 (206-434-5670)

전례상식

성호경과 삼위일체

우리는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이렇게 성호경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나타내는 가장 널리 알려진 기도행위로, 십자(十字) 모양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十字架)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동시에 신자임을 알리는 표시가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성호경을 그으

면서 하느님께서 한 분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位格)을 가지고 계신다는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호경은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에, 모든 전례의 시작과 끝에, 식사 전후에, 위험과 유혹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상의 모든 생활을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신앙인으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기도입니다. 또한 성호경을 내 몸에 그으

으로써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소유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호경을 그음으로써 내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니 성호경을 그는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성호경을 그치지 않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성호경을 그으며, 내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임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굳게 믿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성체강복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성체에 대한 신심의 표현으로, 성체를 현시(顯示)하여 신자들이 조배(朝拜)하게 하고 사제가 성체로써 강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사제는 중백의(中白衣)를 입고 영대(領帶)를 두르고 깃바를 어깨에 걸친다. 성체를 성광(聖光)에 모셔 제대 위에 놓고 향을 피운다. 이 때 찬미가가 불려지고 조배와 목상이 뒤따른다.

두 번째로 향을 피우면서 사제는 어깨보

(humerales)로 두 손을 감싸고 성체 현시대를 높이 받들고 십자(十字)의 형태로 신자들에게 강복한다. 이 때 신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작은 종을 울린다. 신자들은 성체강복이 이루어질 때 강복을 받으며 성호경을 그는다. 사제와 신자들에 의해 성체 찬미가가 불려지면서 성체는 다시 강보에 모셔지고 이로써 의식은 끝난다.

성체강복은 주요 축일(祝日)과 주일, 사

순절, 피정(避靜), 40시간의 성체조배 중에 행해지며, 각 주교들이 지정하는 다른 날에도 행해진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전통적 의식이 단순화되었고 신자들이 좀 더 주의깊게 성체를 조배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성가, 낭독 등의 다양한 방법 등이 허용되었다. 또한 사제가 없는 가운데서도 수도자나 평신도들에 의해 성체가 현시되는 것이 허용되었다. 단 강복은 사제만이 할 수 있다.